

“가을 여행, 광주로 오세요”

광주시, 가을 여행주간 맞아 관광홍보전 열어 관광객 유치

광주시가 가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 홍보에 나섰다.

시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는 가을 여행주간에 '2019 모두투어 여행박람회'와 '서울시 국내여행 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해 광주만의 다크투어 상품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펼친다.

먼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19 모두투어 여행박람회'에 참가한다.

57개국 420여 개 지자체와 관

광업체, 3만여 명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1913송정역시장, 518자유공원 등을 여행하는 '광주 인문학 투어' 등 모두투어와 연계한 관광상품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민주묘지 등을 둘러보는 광주만의 다크투어 상품을 홍보한다.

또한, 큐알(QR)코드 셀프가이드북과 버스 내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광주의 관광명소와 행사를 적극 홍보한다.

또한, 광주시는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국내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광주 관광자원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광주에서 의학, 예방, 미향으로 광주 관광을 브랜드화 하고 있다"며 "특히 202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의학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이명순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추석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연휴 기간, 아동급식제 공급소 점검 · 비상연락체계 가동

광주시는 추석 연휴에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아동급식 지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연휴 기간 관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5561명이 끼니를 거르거나 굶지 않도록 도시락 배달

업체 4곳과 급식카드 이용업체인 음식점, 편의점 등 710여 곳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추석 연휴 기간 아동급식 이용업소 영업일을

확인해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5개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자치구는 아동급식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식품제공계획 등을 확인 점검해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추석 연휴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행자·교통

약자 보행환경 개선한다

광주시는 특별교부세 12억3000만원을 확보해 올해말까지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자 안전 방호울타리 설치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등이다.

우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내 외곽순환도로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 방호울타리 설치해 무단횡단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와 교통법규 준수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과 병원 주변 등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남구 효덕IC 부근 등 3곳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설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선이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하고 효덕IC 부근 등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3곳의 개선 사업을 자치구에 교부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 세외수입

가상계좌서비스 확대

광주시는 9일부터 기존 광주는 행을 포함해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서 세외수입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세외수입으로 고지되는 과목에 대해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위택스, ARS, CD/ATM기,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납부자는 고지서의 은행별 가상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 지난해 가상계좌로 세외수입을 납부한 이용자 수는 전체 수입의 36%에 달했다.

최윤규 시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가상계좌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은행간 이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 참여·협치로 행복한 마을 만들어오

광주 동구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대전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및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출범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5개 광역, 62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해 마을만들기 기반구축과 역량강화 및 공동협력체계를 꾀하고 있다.

올해 3월 회의에 가입한 동구는 이날 정기회의에 참석해 '우리 동네를 바꾸는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자치와 마을계획'이라는 주제로 동구의 자치공동체 구현 사례를 발표했다.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70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또한, 초동학생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강좌도 가야금, 해금 2개 강좌가 운영될 계획이다.

남구, 악성 전염병 대비 대규모 기상훈련 실시

광주 남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전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 등 초동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6일 대규모 기상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상훈련'이 진행된다.

남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훈련에는 광주시청을 비롯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남부소방서,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하며, 광주시 축산업협동조합 및 우제류 사육농가, 광주지역 자치구 방역 관계자 등도 현장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북구,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광주 북구가 식중독 예방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식중독 저감화 및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북구는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 감소와 함께 △시기·원인·대상을 고려한 실천중심의 교육·홍보 △식품접객업소 대상 현장맞춤형 식중독 예방컨설팅 및 인터넷자율점검제 △연중 식중독 지수 및 영업자 건강진단 무료 문자 안내 등의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주변 환경정비

6일 광주 광산구보건소가 치매극복선도대학 광주여대·호남대 학생 70여명과 11월 문을 여는 하남동 '행복한 기억학교 치매안심센터' 주변을 대청소하고, 주민에게 센터 개소 안내와 치매 바로알기 홍보도 실시했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로 치매안심 도시 광산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